건강한 교회를 향한 신뢰의 발걸음

제자훈련 사역을 도입하려는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바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성도들과 충분히 비전을 공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작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비전공유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비전공유를 확실히 한 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보다 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비전공유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선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기 원하니 함께 가자"라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공유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현장이야기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한다. 불신자를 전도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소개할 정도로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찼던 교회.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교회로 변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인 대구 삼성교회를 소개한다.

삼성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끈끈한 교회로
소문나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

1988년 11월까지 삼성교회는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불화로 유명한 교회였다. 대구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사례비로 받으며, 심방 때마다 봉투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담임목사를 성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정치 때문에 교회를 비우고, 심지어 7계를 범했다는 소문이 나도 참았던 성도들이었지만,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목회자의 모습 앞에서는 마침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담임목사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계속됐다. 떠나는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자신이 추천한 사람으로 세우길 원한 것이었다. 성도들의 질타 속에 쫓겨나다시피 떠나는 담임목사이니 그가 추천한 젊은 목사를 삼성교회 교인들이 인정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당회에서는 그 젊은 목사를 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은 그런 당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와 인사는커녕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니 드러내놓고 불평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행동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삼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맡게 된 이정인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계기는 바로 신년 1월 한 달간 진행된 '특별 새벽기도회'였다. 새해를 맞이해 담임목사로서 뭔가를 시작하기는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이 목사는 장로들에게 3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제안했다. 그러자 12명이었던 장로 전원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서 30명 이상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극구 반대를 했다. 당황한 이 목사는 "장로님들만이라도 나와 달라"며 부탁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1989년 1월 1일 열린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전 교인이 다 모인 것이었다. 250명 정도였던 전 교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정인 목사

이정인 목사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로 인정받는 것보다도
상처 입은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그가 처음 실시한 사역은
특별 새벽기도회였고,
기도회를 통해 삼성교회는
회복을 경험했다.

삼성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이정인 목사가
제자훈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기생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10명 모두,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티를 내며 다녔다.
그들은 1기 때 같이 훈련받지 못한
장로들에게는 "꼭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 목사는 3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송구영신 예배에 전 교인이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 목사의 확신처럼,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도 계속됐다. 3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다던 새벽기도회에 무려 120명이나 참석한 것이었다. 특별 새벽기도회 장소였던 1층 기도실이 성도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놀란 것은 이 목사만이 아니었다. 장로들도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광경은 정말 처음 보았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기도실은 너무 복잡하니 본당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회개운동을 전개하려 하니 장로님들께서도 안수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장로들은 또다시 손사래를 쳤다. 자신들이 안수하면 성도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회개운동은 1월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성도들은 교회의 분열과 상처에 대해 자복하며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의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그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였다.

목사를 인정하기 시작한 성도들

그렇게 3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처음 모인 당회에서 한 장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 "이번 봄 노회 때 이정인 목사님을 위임하기로 동의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나머지 11명의 장로 모두 이 제의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 내 자의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회에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봄 노회 때 위임을 결정하십시다."

그런데 이정인 목사를 위임하기로 한 장로들의 결정이 교회에 소문이 나자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다. 젊은 20대를 중심으로 '이정인 목사 위임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두 달도 채 안 겪어 보고 어떻게 위임을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위임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서 위임 찬성파와 위임 반대파의 갈등이 노골화되어 갔다. 주로 위임을 찬성하는 쪽은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었다면, 위임을 반대하는 쪽은 20대 젊은 그룹이었다. 교회 안에 노년층이 절반이었다면 그 자녀에 해당하는 20대도 절반이나 됐기 때문에 위임 투표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정인 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위임을 받는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삼성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목회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사용했다. 자신의 위임 투표일을 한 주 앞두고, 이 목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비웠다. 그런데 대구에서 연락이 왔다. 교회를 비운 사이, 자신의 위임을 반대하는 젊은 그룹이 성도들을 일대일로 찾아다니면서 위임에 반대하라고 설득하고 다니고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세미나가 다 마치고 나서야 대구로 내려갔다. 어차피 위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사람이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믿음처럼, 전체 170여 명이 참석한 위임 투표 결과 참석자의 2/3가 위임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 목사의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의 마음은 위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위임 투표로 인해 또다시 분열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가 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위임 투표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위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한 청년이 이 목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 싫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 안에 상처가 컸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 청년은 성도들이 이 목사를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에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놀랍게도 위임 투표가 끝나자마자 교회 안에 있던 분열은 완전히 잠잠해졌다.

목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정인 목사가 삼성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위임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총 4개월이다. 사실 4개월 만에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것은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도 빠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4개월 동안 삼성교회 성도들은 이정인 목사를 자신들의 담임목사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야 4개월이 걸렸지만, 사실 그 기간은 4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에 4개월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인 목사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성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 담임목사와는 다른 자세로 성도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정인 목사는 그 4개월 동안 어떤 자세를 성도들에게 보여 준 것일까? 사실 4개월 동안 이 목사가 한 일이라곤 특별 새벽기도회밖에 없다. 위임 투표 과정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라면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삼성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삼성교회의 후임 담임목사가 되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전임 담임목사와는 달리, 성도들과 교회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았다. 성도들을 절대로 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목사는 돈과 관련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전임 담임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후임 목사님이 심방하면 괜히 먹던 거 내놓지 말고 책 사 보시라고 용돈으로 준비해서 드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정인 목사는 "부끄러워 혼났다"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절대 그러지 말라며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면 족하다고 정정 광고를 낼 줄 아는 자세를 보여 줬다. 전임 담임목사가 바로 전 주에 한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이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교회의 회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 목사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로 인정받는 것보다도 상처 입은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그가 삼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처음 실시한 사역인 특별 새벽기도회도 바로 그런 그의 고민에서 출발한 사역이었다.

이 목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자기의 목회철학을 소개하거나 사람들을 모으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단지 장로 12명만이라도 모여 함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마음이었다. 결국 12명이라도 모여 달라고 부탁하며 시작한 새벽기도회는 첫날부터 그 10배인 120명의 성도들이 나왔고, 온 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진원이 되었다.

이 목사가 성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소는 그가 결코 자신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을 담임으로 위임하는 투표를 앞두고 젊은 그룹에서 자신의 위임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 목사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반대 그룹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렇기에 그는 반대 그룹이 온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설득하고 다녀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성도들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보여 준 이정인 목사에게 많은 성도들은 위임 찬성의 표를 던져 준 것이다.

신뢰가 모든 것의 기초이다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담임목사를 얻은 삼성교회는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회에 십일조를 내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었지만, 이정인 목사는 그들과 함께 목회한 지 만 4년 만에

5층짜리 새 교육관을 건축했다.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자 이 목사는 평소 그가 꿈꾸던 목회를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다녀온 것이 바로 제12기 제자훈련 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였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부친 덕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 옥한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을 들으며 그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CAL세미나에서 돌아온 이 목사는 곧바로 장로 6명과 안수집사 4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에 들어갔다.

이미 크로스웨이 과정을 통해 기초 양육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이 목사의 말에 장로들은 모두 동의했다. 특별한 비전공유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성도들은 제자훈련 목회를 시작하려는 이 목사의 비전에 모두 선선히 따라 주었다.

삼성교회가 제자훈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기생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10명 모두,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티를 내며 다녔다. 그들은 1기 때 같이 훈련받지 못한 장로들에게는 "꼭 받으라"고 권유했다.

성경암송이 힘들어서 훈련시간 때마다 "와, 덥다"며 부채질을 연신 해대는 장로들이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들 감격이 있었다. 하루는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하게 된 훈련생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훈련생들 스스로 "병실에 가서 그분과 함께 제자훈련하자"고 한 것이다. 이 정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자훈련이 교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실시했고요."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다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삼성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삼성교회의 변화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히 충격이었다. 삼성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삼성교회가 좀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이정인 목사는 교회의 모든 조직을 기존의 남녀 전도회 중심에서 목장 중심의 팀사역 체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해 왔다. 사실 대구와 같이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지역에서 교회의 체제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시도였기 때문에 이 목사조차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내심 걱정했다.

그런데 반발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노회에서 삼성교회의 변화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삼성교회가 전도회를 폐지하면 자연적으로 각 전도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노회의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까닭이었다.

그래서 노회는 삼성교회에게 목장 조직으로의 전환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바로 그때, 이 목사의 편에서 힘이 되어 준 이들이 바로 삼성교회의 당회원들이었다.

그들은 노회가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이 목사의 목회철학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정인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삼성교회 당회원들의 이런 반응은 같은 노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교회가 이 정도로 바뀌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이 목사는 몇몇 후배 목사들의 집요한 요청을 받아야만 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이 목사처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뀐 것은 비단 노회에서만이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삼성교회에 대한 소문은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삼성교회 교인들조차 전도하면서 삼성교회에 오라는 말을 안 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새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지역 내에서 삼성교회에 대해 '좋은 교회', '젊은 교회', '활기찬 교회'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소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뒤 그전에는 250여 명이던 주일 낮예배 성인 출석자 수가 600명까지 성장했는데 그 중심 그룹이 바로 20대 대학생들이었다. 당시 안 그래도 2, 30대가 전 교인의 50%를 넘는 삼성교회에 대학부만 200명이 넘었다.

불균형적 성장의 부작용

하지만 이런 성장은 결코 바람직한 성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20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2001년을 기점으로 경북 경산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이다.

그 여파는 엄청났다. 20만 명 정도이던 대명동 인구가 10만도 채 안 되게 줄어든 것이다. 안 그래도 대명동은 예로부터 가난하고 오래된 동네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신도시 건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촌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대명동 일대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연령적으로는 5, 60대와 1, 20대가 많이 사는 인구 불균형의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인구의 불균형은 삼성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 20세 이상 성인 교인의 비율에서 50세 이상과 30세 이하가 똑같이 거의 40%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교인의 80%가 5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교회의 불균형적 구조를 문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건 교회는 그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인 목사는 비록 젊은 20대들이 교회 성장의 중심 그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교회의 허리를 감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결국 불균형적인 연령 구조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목사가 생각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이상의 그룹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운데가 푹 꺼졌던 연령 비율 그래프가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목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삼성교회를 출석한 대구대와 계명대 학생들이 주로 타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학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옆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문에 삼성교회로 등록하긴 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삼성교회에 남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과 고향을 찾아 떠나가곤 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동안은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2001년 캠퍼스의 이동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교회 성장의 중심 그룹이었던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하지 않으면서 교회 성장도 함께 멈췄다는 것이다. 아니, 교회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나중에 보니 순수하게 대학생만 약 200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

그렇다고 해서 삼성교회가 다른 계층에 대한 전도가 약했던 것도 아니었다. 삼성교회는 대각성전도집회를 잘하는 모델교회로 이미 소문나 있었다. 그래서 〈디사이플〉의 전신인 매거진 〈평께〉 50호에 삼성교회의 대각성전도집회 사역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취재와 함께 실시된 '칼 프로파일'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프로파일 응답자들은 대각성전도집회를 대표하는 대그룹 전도가 교회의 최대 강점인 것으로 꼽았다. 전도에 대한 점수만 놓고 보면, 이제까지 칼 프로파일을 실시한 120여 개 교회들 가운데 삼성교회가 3위에 해당되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얄궂게도 개인/소그룹 전도의 점수는 거의 최하점에 가깝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는 칼 프로파일의 아홉 가지 항목 가운데 삼성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것이 바로 '정착 사역' 항목이라는 것이다. 즉, 삼성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새신자들이 정착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이 매우 어

칼 프로파일의
아홉 가지 항목 가운데
삼성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것이
바로 '정착 사역' 항목이라는 것이다.
즉, 삼성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새신자들이 정착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 삼성교회 교인 연령별 분포 변화를 보면, 이 목사 부임초기에는 20, 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자 20대 학생이 몰려든 것이다. 성장기에는 40·50대 중년층이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삼성교회는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캠퍼스의 2001년 이전과 지역적 낙후로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50·60대 층이 늘고 있는 위기현상을 맞고 있다.

결국 삼성교회가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재정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체질 개선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재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목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이 목사의 계획이다.

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구 대명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 이탈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조금 과장해서 대학생들로 북적대던 동네가 지금은 텅 비었다. 주민 이탈 현상은 비단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원주민 자체가 떠나고 있는 것이다.

대명동은 오래전부터 대구 시내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로 손꼽힌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여기저기에 무당집의 깃발들이 펄럭이는 곳이 바로 대명동이었다. 그래서 대명동에 사는 젊은 3, 40대층은 조금만 돈을 모으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단지로 이사가버린다. 반대로 대명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매우 열악한 노인 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은 삼성교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현재 삼성교회 성도들 중 대명동 거주자는 30%도 안 될 정도이다. 삼성교회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타지에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명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차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삼성교회에 계속 출석하기를 꺼린다. 더군다나 40대 이하의 젊은 그룹은 자기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대명동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전도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연유로,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대각성전도집회 때는 성도들도 전도에 힘을 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지게 되었다.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미 '우리 교회는 정착이 어려운 교회'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강점을 살리라

그렇다면 삼성교회와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삼성교회 칼 프로파일 조사 결과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삼성교회는 교인들끼리의 단결과 교제가 매우 강하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가끔 '대구 시내에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 찾는 것도 어렵다. 교회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가 교인들끼리는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게다가 칼 프로파일 결과, 삼성교회는 '예배'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나 찬양, 예배당의 시설, 하나님의 임재 경험, 헌금, 열정 등 예배와 관련된 점수가 모두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소그룹에 대한 항목에서도 소그룹 전도 부분만 제외하면, 소그룹 안에서의 양육이나 성도들 간의 관계는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신자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마음이 덜 열려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 그건 단지 종교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신자들의 마음을 교회로 이끄는 데 더 좋은 접촉점은 바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돌아보는 관계이다. 새신자에게 배려와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새신자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기 어렵다.

이런 모든 결과를 놓고 볼 때, 삼성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소그룹을 전도의 통로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속에서 잘 양육된 새신자를 예배의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목장 사역은 삼성교회의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정인 목사가 그리는 목장 사역의 모습대로 목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재정비하라

결국 삼성교회가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재정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 목사는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세우는 데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러던 중 갑자기 대학생 그룹이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 한동안 이 목사는 제자훈련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미 제자훈련 수료자의 수가 전체 교인들 가운데 3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목사는 왜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치유에 집중시켰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회가 새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산모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삼성교회는 병든 산모 같았습니다. 마치 애 낳기 전에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산모 말이지요. 자연적으로 뱃속의 아기보다는 죽어 가는 산모부터 살려야 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자훈련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으로 삼성교회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장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이 목사는 그 시작을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로부터 출발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역자들이 먼저 '영적 재생산' 능력을 갖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생각이다.

그동안은 체질 개선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재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목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이 목사의 계획이다. 또한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사역훈련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그룹 지도자라는 것을 그도 깨달은 것이다. 목장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소그룹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역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목사가 이처럼 제자훈련의 포커스를 재정비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을 통해 역동적인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목사는 교회에 '비전 2016'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2016년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시 외곽에 독립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 비전의 성패는 목장 사역을 통해 교회 조직이 역동적으로 전환되는 것과 그에 걸맞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출발은 제자훈련 사역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비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 2016을 향하여

사실 아직도 삼성교회는 정체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전 2016의 1차 목표인 주일 낮예배의 장년 출석인원 700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교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의 변화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10여 년의 시간을 사용했다. 이제 그들이 보여 줘야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열매이다.

대구지역 CAL-Net 팀장이기도 한 이정인 목사는 사실 요즘 그 부분에서 심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 그래서 칼넷 팀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며, 그런 이유에서 그가 맡고 있는 CAL-Net 팀장이라는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와 삼성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비전 2016을 실현했을 때, 자신 있게 CAL-Net 팀장을 다시 맡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삼성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15년의 시간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의 첫걸음이었다. 이제 삼성교회는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딛으려는 발걸음에 우리의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교회의 성장이 멈춘 듯 보이지만, 여전히 잠재된 장점들이 많은 건강한 교회 삼성교회의 비전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순종 목사〉